朝鮮日報

朝刊 本紙特價二十錢

發行所 朝鮮日報社

社說

稅制改正要綱

一

오래동안 課題로되야잇든朝鮮總督府의稅制改正은 今年九月부터 實施키로決定한後 財務局에서 거긔對한準備를進行하는一方 日前그改正의要綱까지 發表하기에이르럿다。그改正要綱에依하면 第三種所得稅 相續稅 淸凉飮料稅等을 新設하는同時 地方稅에잇서서도 戶稅를全廢하고그대신第三種所得稅에는 附加稅 그免稅者에는 特別所得稅를 課하며 現行家屋稅를 오는都市에限치안코全朝鮮을通해實施키로 될모양이다 아때까지朝鮮에잇서서는 第三種所得稅나相續稅가 存在치못햇든만큼稅制로써資本을擁護한다고 一般의非難이紛紛하든터다 오늘날 그兩稅의新設에 대하야 勿論우리로서 反對의意見을가질바아니다。그러나 이미 總督府當局者가 稅制의改正을着手하는以上 적어도現行稅制의根本的缺陷을 改正하기에그目標를세우지안하면안된다。萬一 一時的彌縫으로써 外面만을裝飾코자한다면 우리로서는 다시異議를提起치안을수업다。

二

日本內에서 實施하는所得稅에는 三種이잇스니 第一種은法人이所得에對하야 課稅하는것이요 第二種은 公社債와銀行預金의利子 貸付信託의利益 또는上記規定에 該當치안한바 本店이나 事務所를가진法人으로부터밧는 利益이나 利息의配當 剩餘金의分配 利益과 剩餘金의處分으로된 賞與나賞與의性質을가진給與에對하야 課稅하는것이요 第三種은 第二種에屬치안한 個人所得에 對하야課稅하는것이다。朝鮮에잇서서는第一種所得稅가 大正九年부터 實施되얏섯고 지금도 第三種의 個人所得稅가 장차 實施될것이나 第二種의所得稅만은 아즉도實施를 보지못하게 되는것이라 아모래도畸形의 法令을免치 못하리라고생각된다 第三種所得稅도日本內의 免稅點은 千二百圓인대 지금朝鮮은 八百圓으로決定될 모양이요 日本內稅率은 百分의 二로부터 百分의三十六으로 累進하는데 지금朝鮮은 百分의 二로부터 百分의十六으로 累進하도록決定될모양이라 免稅點은낫고 累進率은 놉지못하야 比例로보아巨額의 所得者보담 小額의所得者가 더만흔負擔을지게되리라고생각된다。

三

日本의 現行稅制그것도 都市와 農村 貧과富의 負擔이넘어나均衡을일허 一部로부터改正의要望이 노파잇는 現狀이다。지금 朝鮮의 改正될稅制가日本內의 現行水準以上으로 넘어서지는것은 못하나마그以下로떨어지는것은 적지안한遺憾이다。財產相續稅는 家督相續이千分의五로부터 千分의六十으로累進하고遺產相續이 千分의十으로부터 千分의二百十으로累進하리라고하니 日本現行法의累進率과 別로差異가업다。第三種所得稅와比較하야 相續稅는 오히려適宜한制定을 보앗다고도말할수잇스나 日本의財產相續稅가 本來다른나라와比較하야 아즉도小額의課稅라는것을알어두지안하면안될것이다 그러나 그보담도 큰問題는朝鮮內에잇서 地稅營業稅等의收益稅가 全然累進稅가아니라는 그것이다。이모든 收益稅를累進稅로고치지안는以上 負擔의均衡은 바라기가어렵다。

四

地方稅에잇서서 戶稅의全廢는 조호나 特別所得稅가잇고 家屋稅의實施範圍를擴張하는만큼 조금도農村負擔의輕減을意味치못한다。또第三種所得稅의實施를따라 課稅負擔나收稅合費의輕減은조흐나 그한가지稅目의이름만이 밧귀엿에끄치고 實地負擔에는 아모關係도업지안할까疑心한다。如何로보나 徹底하다고는말할수업는今番의稅制改正이 어느點으로 朝鮮의 現實에 비치어 多數民衆의 實利實益을爲하야 根本的改正을 加하여야할것이아닌가?

信敎自由中心으로 獨逸宗敎界分裂
兩派對立하야抗爭激化
褐色宗敎統制의反動

【聯合伯林九日發】 一九三三年六月힛틀러政府의信敎의統一政策下에 獨逸國內의新敎二十九派의大同團結이되야 不遠나치스指導下에動하려하는 뮐러一派의御用派와 어데까지던지信敎自由를守하려하는 보-델스티밍師의一派와는 敎團內에對立함에至하야獨逸宗敎界는 이제分裂狀態의重大危機에直面함에至하엿다 特히나치스의統制에反對하는 數千의 信徒及信徒團은 大司敎뮐러師에書翰을寄하고更히獨逸政府主張의信條를一律로實施함에至하면 如所한形勢만의敎會를隔離할뿐이라고強硬히反對意見을流하고잇다 他方뮈뻐라師를 先頭로한 全國一千五百의牧師는公然히뮐러大司敎排斥의態度에出하엿다 뮐러大司敎는 九日秘密警察隊長과무슨議論을 意하엿스나何等의行動에出치안엇다

佛蘇通商協定 十一日正式調印

【聯合巴里九日發】過般來佛蘇兩政府間에 商議中이든佛蘇通商條約은 今回에 겨우成立되게되여 大體로假調印을完了하고 十一日正式調印을 行하기로되엿는데 新通商協定은物物交換의 原則에基하야 佛蘇兩國의 通商關係를促進한것으로 그要旨는左와如함

一、蘇聯政府는 一九三四年度에佛國으로부터 最高二億五千法의輸入을行함

一、右輸入은長期크레딧에依한것인 此等佛蘇通商局에서管理함

一、싸베-트聯邦은 佛國에對하야石油木材마간等을輸出함

日英民間協議
英國側急速進行準備
兩代表와對策練磨

【聯合倫敦九日發】 日印會商의成立에伴하야랑카샤綿業團은頻頻히日英協會의開會를急히하야오로지日本代表部에本國政府로의回訓到着을기다리라고잇다 回訓到着과同時에日本代表部는 랑카샤綿業團에通告하야協議開會의 日程을決定할터인대日英兩代表共히最初에會議에提出할對策을講究하고잇다 特히랑카샤綿業團代表는 八日特別會議를開하고日印新通商條約의要綱을檢討하는 同時에日英協議會의對策에關하야協議하엿다

日印雜貨會商 廿日頃開催키로決定

【聯合東京電話】日印會商은圓滿히成立함에至하엿는대 印度가 去月二十三日 日本重要雜貨品에對하야 禁止的高率에關稅引上을實施하야 漸漸輸出을보이고잇는 日本雜貨營業者에與하는打擊은 相當히重大함으로 日印最終本會議席上에서 澤田代表는 去五日右는 最惠國待遇의許容條件의趣旨에 反하는것이라는理由로 期待하는旨를提議하엿다 此에對하야보아長官도十分考慮의用意가잇다고 聲明하고 從日의協議에讓하고잇던바 來二十日頃까지에日用雜貨會商을 開催하기로되엿다 印度側이 새로雜貨에賦課한從量稅는相當히 廣範圍에亘하야就中메리야스、陶磁器、琺瑯鐵器、及鉛筆等本法重要輸出品에十割乃至廿割以上의高率을賦課하얏는대果然右賦課率이 妥當하냐?함에關하야外務省局은在칼캇타와봄베이의 三宅總領事、桑原領事로하여금詳細한調査에就하야 調查식혀이를商工省에報告식혀서檢討하고잇는대近近完了하게되엿슴으로 今回會商開催를보게된것이다

新條約에關한 印度側意嚮

【東通델리九日發】新日印條約에關한 印度側의意向에關하야印政府는 日本에最惠國待遇를 與하드래도 英帝國에關하야는 特惠關稅를設지안을수업는것을 條約文에 明記할것을希望하고잇는模樣이다 即英國帝國의 特惠關稅는即默認되야잇는대 日本側은此를 條約文에記載함은反對임으로此點이아즉 折衝의餘地가잇는터인대 적어도來月上旬까지는 倫敦서本條約을正式調印시키려는意向인듯십다

火源이그리單純한것갓지안소 全歐洲火山系가 活動을停止하기前에「폼프」한個의힘으로서 이山을休火山으로 만든다는것은妄想!

非政治的動物의政治
힛틀러의生物學과 스타린의新方法論 (二)
조-지、버너드、쇼翁

(힛틀러는 狂人인가 偉人인가의續)

그리고 나로서처음부터 힛틀러를推奬하고십흔것은 그의 얼골이다 精力에넘치고 謹愼한表情을 가장強烈하게面上에나타내고잇는 힛틀러의얼골은 貧窮과不安에싸혀잇는 現下獨逸社會의政治家로서 가장適當한일홈이라할것이다

不良生物學에 犧牲된힛틀러

나는 힛틀러의勇氣와 信念을조와하지마는 그러나 그가하는짓에 全然同意할수는업다 첫재힛틀러는 잘못된生物學과 神通치못한 人種學의 犧牲이 되고잇다 그는 人類를아리안族과 라틘族으로 嚴肅하게區別하는모양이나 그것은、偉大한넌센스이다、그는獨逸人과獨逸人의 純粹한連結로써獨逸的生活을 政治的으로完成할것을目標로하는모양이나 그것은低級한生物學이다。나는反對로雜種繁榮論이다。血統이 混合되지안으면 家譜가絶斷되實證은動物에 잇서서나植物에잇서서나 얼마든지實證할수잇는일이기때문이다。

英國의 家系를보라!그것은大槪가雜種이고、또雜種이기때문에 遺傳의結果도 純種보담낫다、優生學은 어데까지 理이다、勿論我等은英國社會의傳統的인貴族階級이英國的血統을固持하고잇는것을본다 그러나그들이特別히더紳士的이라는것은體質에서는發見할수가업다或그들中에는모든 스포츠에能하고 그럴듯한푸로필을가진사람들도잇다 그러나그것은보조이떡(露西亞產獵犬)과 가튼美이다。보조이떡은確實히한特徵을가지고잇다 그러나보조이떡은 뿌레인(頭腦)가업다 오즉自己가 먹을것을求得하는머리가잇슬뿐이다。이것이純粹種의한典型的結果이다

이것이 내가힛틀러를나무라는重要理由의하나이다 힛틀러는 猶太人을 내몰것이아니라『猶太人은 猶太人과 結婚하지못하고 반다시獨逸人과結婚할것이라는 條件下에서猶太人의存在를默認할것이엿다。』

뭇소리니君이 꼭하여야될일

다음하려는類의 偉大한紳士의하나인 뭇소리니君은只今모든產業部門을 協作組織안에集中하야 組合國家를맨드는데著手한모양인데 各產業部門의代表者의 評議會를議會로 代用하려는것은 議會보담은 直接的効果가잇슬터이나 여긔에나는한가지疑問이잇다 大體뭇소리니君은各產業部門에잇서經營主體를 資本家로하려는셈인가勞働者로하려는셈인가? 利益收得이라는것이經營의基礎가되는以上에뭇소리니君은엇더케全體的協作을企圖하려고하는가이에잇서我等회비안協會가뭇소리니君에게勸하는것은全國土地의組合所有社會主義의 採用이업시는파시즘은 結局、資本家使用에 加擔하는것이라는非難을免치못할것이라는點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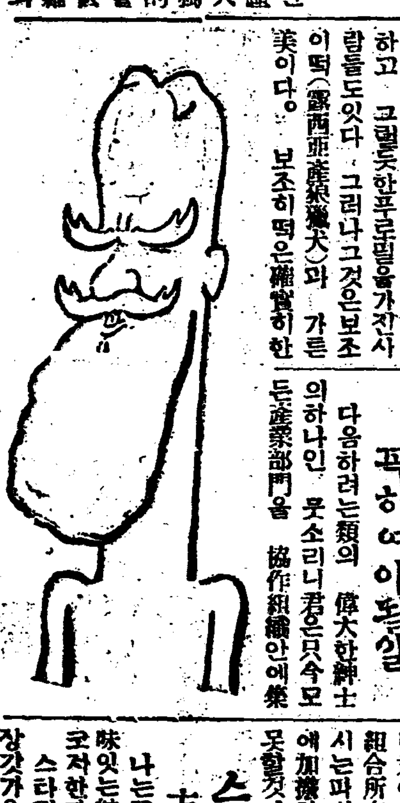
스타린의新方法論의實際

나는곳힐로獨裁者中에가장興味잇는紳士스타린에對하야一言코저한다。스타린君은事物을成就하는가장갓가운길을 가장勇敢하게確信을가지고 거러가는사람이다 여긔에 한일이잇서서 여러가지코-스가생길때 스타린은 가장갓가운코-스를나는해본다 이때에 萬一正統論者가『이것은마시즘의 原則에어그러진다』하고 左右를살피지안코나간다고하면、스타린은말한다、『나는이일을해볼터이다、막스學은틀리지안는學이다』

그리하야 그일이 成就되면『이일은막시즘에 背馳될理가업다 막스學은틀닌일을 成就할수가 업슴으로!』

스타린의方法論은行爲의正當을行爲의 成就로서代爲하는社會勸學이다、

이러케 獨裁者의하여오는일을一括하야보면 最後로 엇을수잇는것은、議會主義는論하고 獨裁主義는行하는 哲學이라는것이 明白케될것이다。(下略)ーー버너드、쇼氏의회비안協會에서의 講演『The Political Animal』의要約ーー뉴욕타임스에서(完) (고랑은漫畫化한 쇼翁)



一事一言

檀君陵

長白山人

檀君陵은 平安南道江東에잇다。뒤에는 한밝(大白)의 韓峯이 솟고 陵의바로 東쪽에는 아달메(阿斯達山)라는 三角山이 잇다。檀君陵에는 石物도 업고 祭閣도 업고 短墻을둘럿스나 鷄犬의노리터가 되어잇다。陵의 右便에는 바로 담에 連해서 民家가 잇서서 거긔서 닭과 개가 陵에 나와서 놀게되어잇다。

江東有志들이 檀君陵을 修築하기爲하야 只今까지 모아노흔것이 七百二十五圓이다。江東有志 들은 한 三千圓만 모으면 祭閣이나 짓고 墻垣 이나 고치고 비나 해세우고 할 意向이라고 하지마는 비록 곱고 헐벗더라도 朝鮮人이 二千三百萬이나 살면서 檀君陵을 그처럼 陵略하게할수는 업는것이다。적더라도 民族文化와 紀念의 陵이오 記念이 되기에 合當만한 威信은 가초지아니하면 아니될것이니 첫재로 陵墓의 墻垣의 修築、둘재로 陵前의 擴張、셋재로 記念殿、넷재로 守護維持基金은 세워야할것이다。힘만 잇스면야 數十萬、數百萬圓도 아깝지아니하지마는 적어도 數萬圓은들여야 할것이다。이만한 돈은 어느 富者 혼자도 내일수잇는것이오、有志誠金으로도 버찬 일은 아닐것이다。

이에 對하야 아는체하는사람들이 或은 檀君의 實在性을 의심하고 或은 江東의古墳이 果然 檀君의 陵일까를 의심하는것으로 그네의 術學을 삼지마는 우리 民族에게 처음으로 國家生活과 文化의 모든 法과 敎를 주신 始祖가 잇슬것이아니냐、그어른이 곳 檀君이시라고 우리 民族이 無始로 부터 미더오지 아니하엿느냐。그 君이라는 어른의 陵으로 江東의 그 陵하나만이 잇거오지 안느냐。檀君은 모든 學者들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우리 始祖시오、江東의 檀君陵은 檀君에 關하야서 우리가 가진 唯一한 物的紀念이다。

朝鮮米移入管理 結局流產乎
段落된朝鮮米에難題

昨年의米穀統制問題가發生하엿슬때 農林省의一部에서提唱되여 外地側에一大刺戟을與한朝鮮臺灣米移入管理問題가再次擡頭하엿다고傳하는대 對하야總督府에는 아직何等公報가업스나 總督府關係者는結局議論에서 끈치고마르리라고觀測하고잇다 移入管理論은日本內地의 米穀統制上을主로하야考慮한다고하면一時的便法으로考慮할수도잇스나結果는 朝鮮農村에非常한重壓을加하야 農村이購買力을顯著히減退식힘으로 따라서는朝鮮產業의各部門의委縮을招來하야日本內地產業界의不振의原因이된다는因果關係로 結局日本內地가스사로墓穴을파는結果가될것이라고한다 根本的으로그政策임을 더러 實際問題로此를如何히實施할는지가重要한難點으로結局實現不可能이라고하나이와가튼問題가再次臺頭하게論議된다는것은朝鮮米의前途에暗影을投하는것이라고하야그推移가注目되여잇다朝鮮側에서는移入管理에는絶對反對로反對理由로는

一、移出許可權이 總督府에잇다고하여도 實際는日本內地의形便에 支配되여何等自主權이업게된다

一、許可의標準을어대둘가問題로情實에흘늘憂慮도잇서事務的으로非常히困難하다

等等의 難點을 擧하고잇스나 移入 管理를 行하면 移入管理同樣으로絶大困難은伴할것이나專賣制度를實施하는것이合理的이요 効果的이라고하야當面의對策으로서는政府買上을商人의持米를買치안코 農家의手持米를直接買上하게하는것이第一이라고한다

危機는僅免햇스나 議會通過가問題
植民相辭職後의佛內閣

【聯合巴里九日發】 빠이욘市營質屋事件에關되야 一時에危機를傳하든 쇼탕內閣도달시예 植民相의 引責辭職으로危機를脫出하게되엿는바 詐欺罪의前科잇는者는 一切株式取引人을禁止하고萬若此를犯한者는二年以下의禁錮에 處하는新法案을提出하야反對派의 機先을制하엿다 右法案은十一日議會에提出할터이엿으나同日은右의프란제드를中心으로한 反政府諸派가빠이욘事件을드러政府彈劾開始한바果然쇼탕內閣의職衛이奏效될는지자못注目되여잇다

南京外交部長에 顔惠慶就任?

【聯合南京九日發】九日外交部發表에依하면 싸베-트聯邦駐箚大使顔惠慶氏는 一月中旬에歸國하기로 決定되엿다同大使는 羅文幹氏의後를襲하야外交部長에 就任할듯하다고觀測된다

農村振興協議
十日總督府에서開催

今年의農村振興 新實施方針을確立할 各道 農村振興指導主任者協議會는 十日午前十時부터宇垣總督臨席下에 總督府第二會議室에서 開催되엿다出席者는總督府側으로부터 渡邊農林局長 湯村農産 穗井農政兩課長그他各局關係者 十數名、道側으로부터各道農務 產業 學務各課의 農村 指導 事務擔任 主任者 社會主事 金融組合主席 參事等六十六名總督府當面의重要問題인 農漁山村振興問題에 關하야旣往의經驗에基하야 今後의方針을決定할重要會議로 더욱總督府側으로서는各道實務家의 忌憚업는意見을 聽取하려는實로農村振興運動이 始作된以來의最初의試驗인만큼 出席者는모도稀有한緊張을보이고잇다 會議는먼저宇垣總督의 訓示로부터始作하야 農林局長의 演示、午後에는總督府의 農漁山村振興計劃案의 詳細한說明이잇슨後第一日을마칠豫定이다

夕刊後의市況 (十日)

大阪短期氣配

大新	一二六四○	(不變)
鐘新	一三九六○	(不變)
日產	一一九三○	(二○高)
東新	一七○五○	(不變)

橫濱生糸後引

當限 五四九○○ 先限 五五三○○

謹啓 今般出發之際에는新春早早에多忙하시오며特히降雪中에도不拘하시고見送하여주섯슴을深히感謝하나이다

一月十日 森秀雄

고무靴界元祖 大陸고무

京城中林洞一五五 大陸고무工業株式會社 專務取締役 李圭元 電話本局三一三八番 振替口座京城一二八一番

總販賣部 京城鍾路(裁判所前) 電話光化門長七六五番 振替口座京城七一三三番

總販賣部支店 京城南大門通四丁目(南大門市場越便) 電話本局七五四番 振替口座京城三七七五番

謹賀新年

孟山邑內 農民共生組合

北倉

孟山郡東面 李承元

孟山邑內 張善翊

孟山邑內 金炳九

孟山邑內 孟盛商會 李守文

孟山邑內 金宗貞

孟山邑內 司法代書業 梁鎬佶

孟山邑內 司法代書業 田華壽

孟山邑內 孟山協同組合 安國鼎

孟山郡 封仁面事務所

孟山郡 封仁警察官駐在所一同

孟山郡 封仁公立普通學校

孟山邑內 趙仁聖

孟山邑內 鐵盛旅館

孟山邑內 德山菓子店 金昌善

孟山邑內 吉燦基

孟山邑內 久馬榮治

孟山邑內 坂田巖

孟山邑內 盧景遜

孟山邑內 鄭炳善

孟山郡北倉市 趙元欽

孟山郡東倉市 白龍珏

孟山郡鶴泉面古下里 白虎喆

牙山

牙山郡排芳面新興里 姜泰元

牙山郡道高面事務所 李復永

芙江

淸州郡賢道面 面長 林振喆

京釜線芙江 芙江公普校 職員一同

燕岐東面事務所 職員一同

慶州

慶州入室 南極斗

慶州良洞 李錫雨

英陽

青杞公立普通學校

英陽郡 日月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新溪

新溪邑 谷山新幕瑞興下峯行 合資會社 新谷自動車部 代表 孔聖壽

新溪公立普通學校 校長 松岡勉 外職員一同

寧遠

寧遠邑內 南川俱樂部

寧遠農民共生組合 郡支部職員一同

寧遠邑內 天道敎宗理院 徐達悌

寧遠邑內 朝鮮日報社寧遠支局 李玉鉉

寧遠農民共生組合 中興支部 崔泓俊 洪達春

光州

全南光州 辯護士 李圭正

全南光州 任永模

光州郡 酒造組合員一同

泰仁

井邑郡瓮東面龍虎里 有志 金永同

井邑郡泰仁面泰興里 具甲會

井邑郡瓮東面梅井里 有志 金判巖

井邑郡瓮東面七石里 權承龍

井邑郡瓮東面龍虎里 有志 權泰鉉

安城

安城郡廳職員一同

安城金融組合理事 東田隆次郎

安城第二金融組合理事 山根滿夫

三竹製炭組合

京釜線安城驛前 安城協同運送組合 組合長 李

一般的體育普及에 莫大한影響豫想

蹴球庭球統制問題

一般을學生이主된關係로 斯種大會는必然激減

총독부 학무당국에서는현재 조선안에비상한세력으로질로약으로발전을보이고잇는 각종운동경기에대하야특별한관심을가지고이것을그대로방임해둘것이아니라경기대회등의제한업는 개최와 또는이가튼대회에제한업는 참가는 일반학생들의학교생활에 잇서서 중대한영향을 가질뿐아니라 한거름더나가서는 주최하는 단체등의성질여하로 보아서는 일반학생들의사상문제에 까지관련을 식혀이른바 사회정책적 처지로 보드라도 이것이 자미스럽지못하다고하야 몃해전부터는 조선신궁 경기대회라는 전조선적으로 권위잇는 종합경기대회를 만드러 이것을대세적으로 통제시키는동시에 그후로는 각부분경기에 이르러도 엄밀히통제할 방침을세우고 작년이래로 이방면에대하야 연구를 거듭하고잇든중 드듸여금년봄부터는 먼저 정구와축구에 이것을 실시하고저하야 얼마전에 원안의작성까지보게되엿다고한다

조선안에잇서서각종운동경기는 해마다질로나량으로나장족적으로진보를보여개중에는벌서선진국의 그것과동렬될만한 수준에 달한 경기도잇스나 이와가티특수하게 발달을 보게된종목은대개가 경비와설비가 가장간난하고 가벼운종목에서 보급과향상이함께발달됨을 볼수잇다

이번에 당국이 통제코저하는정구와 축구는 조선안에서학생중과 일반을물론하고 가장넓게보급되고 기술적으로보아도 놉날만치 발달을보게된것으로 금번 통제안의 내용을 본다면

세학교이상나두도(道)이상을 관계한 대회는 체협(體協)의 책임감독을 밧게될것이요 전조선대회는 학무국의 인가를 요하게되고 입장료를밧는 대회는 물론어떤대회를 물론하고학무국의 인가를밧어야만될것이요 응원단에 관한책임은 원측적으로 학교교장이 이를저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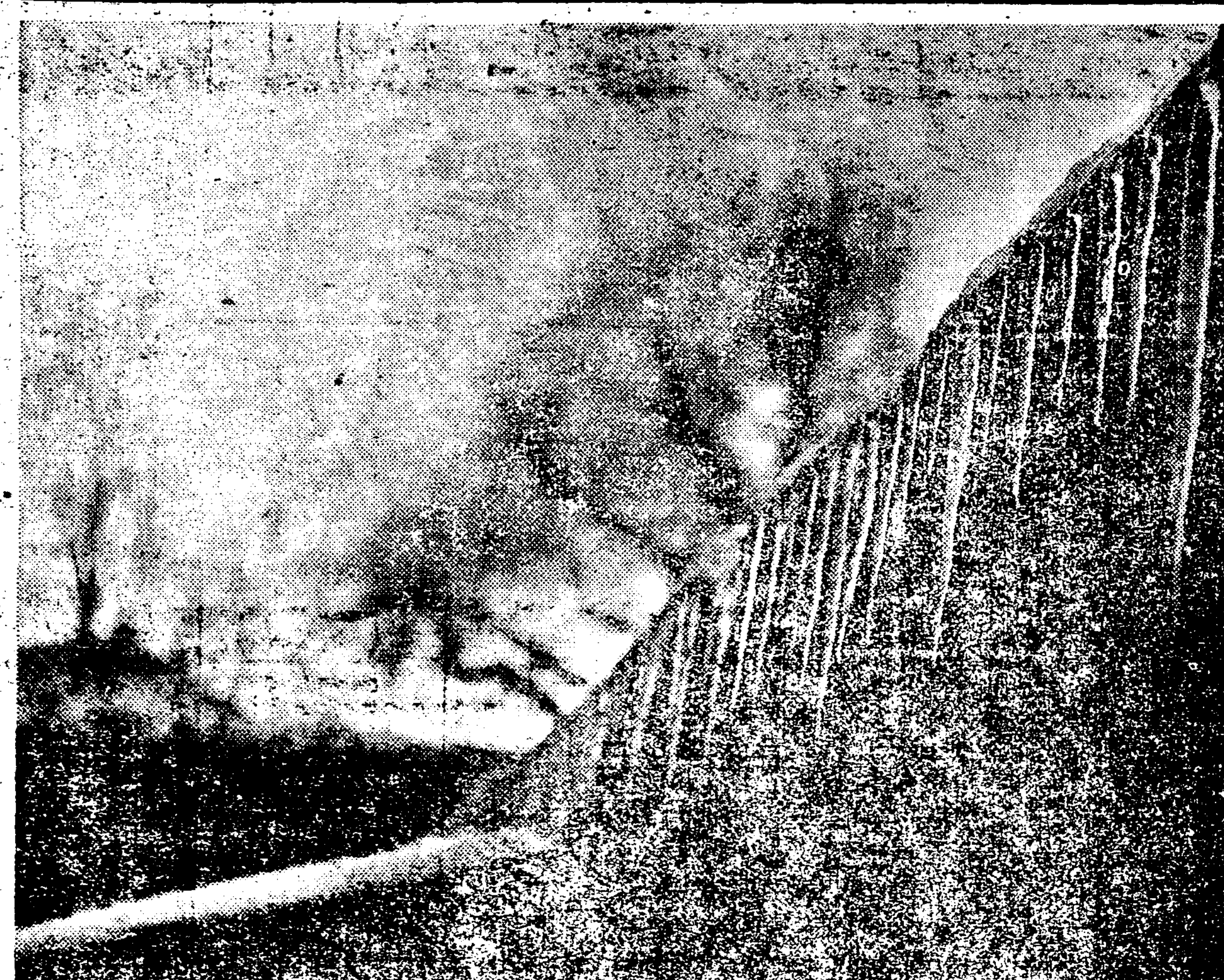
는것으로 이원측을두고보면 이처럼 자유롭게개최 할수업게될 종류운동의 경기대회는 금후좀터로 이통제안의 골자는학생에 한한통제라고하나 현재조선안에서 이종류운동의각종 대회는 일반이 참가하는대회라도학생의참가가업스면거의대회가성립못될만큼 희젓하야 언제든지 일반선수의 경기도실제에 잇서서는 학생에게『리ー드』되여나오든관계로 결과와가티통제가되여대회등을 자유스럽게 개최하지못할때는 현재해마다 전조선안에서 매년사백여차례식 이나개최되는 이종류대회는 칠팔할이상의 축소를 보게될것이요 이와함께 다른일반의 운동보급과 보건장려에잇서서 중대한영향이 미칠것을예상한다 이에따라 사회각방면의 여론도상당히 놉흔동시에 일반의 의견을소개하면다음과갓다

스포츠 官僚化反對

尊重할民間機關의歷史

朝鮮體育會 常務 金圭冕氏 談

축구정구통제에 대한 근본정신은찬동 하는바이지만 그러나순연한스포ー츠를 망각하고 정치적견해에서 통제가 생긴다는것은불가하다 과거십오년 동안을 축구등발전에 진력하여온 조선체육회(朝鮮體育會)를떠나서통제운운하게된다면 절대 불가한일임으로 만일에관료적으로 축구통제가 실시된다면 우리는될수잇는한도에서 반대를 하고우리의손으로 통제하여 갈능력이 잇음을뵈여 민간체육 기관의권원을준수하여야될줄로생각합니다



◇고두름에부는바람、날은치워진다

民間團體活動 萎縮이問題

延禧專門 兪億兼氏 談

야구경기에대해서는벌서작년부터인가제로 해왓습니다 남은것은그밧게축구정구등경기문제인데 주로학교에대한문제 입니다 그러므로 아프로민간 체육단체에서학교를 중심으로 대회를개최하는것은좀어려웁게될것이외다그러케되면결국학교에서는대교경기(對校競技)가튼것은자주할수잇겟스나 일반련합경기는 자주할수업게될것이외다 다만 학교에대한 문제임으로 일반의 운동경기에는 그리상관업슬것입니다 학생들의 체육발달여하는 그로말미암아 한층퇴보될념려는업슬줄로생각합니다

民間大會를 認定할일

李丙三氏 談

응원단체에대하야는 자연 학교장이책임을지게됩니다만은평상의훈련이매우필요할것입니다학교주최의대회는 학무국장의허가를 맛게도되겟스나 다른사회단체의주최까지학무당국의허가를맛는다는것은이중의허가를 맛게되는것으로서무용한불편을 더하는줄합리가엇지아니할가생각합니다그러고 권위업는대회를 함부로주최하는것은 오히려제한함이 조타고 생각합니다다만은 조선체육회(朝鮮體育會)라든지 관서체육회(關西體育會)가튼권위잇는단체에서주최하는것은제한하지 아니하엿스면 조타고생각합니다 운운

大會만흐면 工夫도게으른다

學務當局者의主唱

축구와 정구를 통제하게한것은 학생경긔에 잇서서 순전한운동정신을떠나서 경긔대항단체와의 분규를빈발하고 또너머대항경긔에 열중하기때문에 참되체육의 효과를엇지못하며 또한학과까지 게으르는등 여러가지폐단이 만음으로 일즉히야구통제를한 전례와 또통제성적에대조하여 이번축구와 정구의통제도 하게된것인데 통제의 성적을완전히 어드려면 당국자의감독취체와 아울러 일반학교당국자와 운동경긔의 참가자가 항상운동정신에 어그러지지안토록 노력하여야될것입니다

潛水艦浮力의 驚異的大發明

【巴里電報(佛)八日發】 잠수함(潛水艦)의 부력(浮力)을 절대로 확보하야 설사『바라스트·탕크』가해수(海水)를 배제할기능이 업서저도 잠수함을자동적으로 수면에뜨도록 하는경이적발명이 일본다음으로 잠수함을중시하는나라인 불란서의 일퇴역해군기사(退役海軍技師)『주리앙기뽀』씨가완성하야 짤일그실험을『웨롤』에서 거행하엿섯는데 련회한불국해군사관·조선기술가(造船技術家)들을놀내게하엿다

民間機關의 統制가더有効

中央基靑體育部 張權氏 談

통제는 원측상으로 조흔것임으로통제문제는 우리 스포ー츠계의다년열망하든바임으로단연통제잇게 지도장려할만한 통일단체를결성할수잇다면스포ー츠정신에 빗추워서도조흐나 관설통제단체로서의 통제되는것보다는우리가 스사로 순연한스포ー츠단체로서 통제함이 자발적이니만치효과가 더크리라고 생각한다

一長도잇스나 制限이過分

中央高普玄校長 談

공문을접한후가아니면 명언하기는곤난하나 일반으로 입장료밧는 대회를될수잇는대로 주리는것은 조흔일입니다 학생을 재료로 해가지고 돈을마히밧는것은 불찬성입니다 응원단체에대한 책임을 학교장이지는것은 매우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삼교이상량도이상 관계의대회는 모다 당국의 감독에의한다함은 무리할것 갓습니다 그러케되면 중등학교『리ー그』전가튼것도 불능하게되지아니할가합니다

運動大會는保健에影響

醫師金鐸遠氏 談

무스필요로 통제를 하려하는지 알수업스나 운동이란것은 다른상업이나공업등의자유경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폐해와 가튼것은 업는것이며 또한이것은자유로운환경에서만 잘발달될수잇는것임으로 당국의그러한 까다로운 통제로말미암아일반은 운동경기의 회수가 적어지게될것으로 생각된다 체육의발달여하는 곳민중의 건강문제에도 관계되는바임으로 나는의학자(醫學者)의 립장에서 그체육통제의 장래결과를 념려하는바입니다

自働車修繕타가 運轉手一名火傷

【金海】 오일오전여덜시경김해읍내 마산자동차회사(馬山自動車會社)운전수 백승우(白昇羽)(二五)는김해읍을떠나진영(進永)으로 가는도중삼거리(三溪)에일으러 자동차에고장이생겨서 운상에출을노코 그것을곳처려고 하다가 휘발유에인화되어 동시에 외복에 불이당겨화상을당하얏다 즉시 대전의원에입원식혀치료중인데생명에는관계업겟다고한다

賭博趣味의文士 久米氏等起訴

有閑마담만은不起訴

【東京電話】 리견돈(里見弴) 구미정웅(久米正雄)씨등 문단의 유명한인사들과 길정용(吉井勇)씨의 전부인덕자(德子)등의 유한계급남녀들의도박사건은 동경구재판소검사국 구보전(久保田)검사담임으로 취조중이든바 십일에 리견돈(里見弴)、좌좌목무삭(佐佐木茂索) 구미정웅(久米正雄)、소혈륭일(小穴隆一)중천길이(中川吉二) 도원일(島源一)길정덕자(吉井德子)등촌진일랑(藤村眞一郞) 원등기꾸(遠藤キク=里見氏의愛妾)등아홉명은단연기소하기로 내정하고 좌좌목후사(佐佐木フサ)산내정자(山內政子=里見氏夫人)구미염자(久米艶子=久米氏夫人)중호천부지(中戶川富枝=中戶川氏夫人)천구송태랑(川口松太郞)씨등다섯명은불기소하기로내정하엿다

런넬에拳銃

【定州】 지난 구일새벽에 철로를 순시하든 곽산보선구편산(片山)모가 곽산 런넬부근에서 실탄이들어잇는 권총을 발견하고 곳주재소에계출하야 정주본서로 보냇다는데 때가때이니만치 그결과가 대단히주목된다고하며 당국에서는 만주파견병이 변소에 갓다가 떠러트린것이라고하는데자못의문시되여잇다

世專學生劇은 十二、三兩日

세부란쓰의학전문학교학생극은 십이일과 십삼일에열린다 특간사고는착오이기에정정한다

氷上競技界白眉

二十五日大同江『링크』에서展開될 第三回京平對抗大會

【平壤】 전조선빙상경기계에서 최고의 인긔를집중하는경성 백구할빙구락부(京城白鷗滑氷俱樂部)와 평양련광할빙구락부(平壤練光滑氷俱樂部)의 대항경기인 제삼회경평대항빙상경기대회(第三回京平對抗氷上競技大會)는 금년당번인 련광구락부주최 본사와 본사평양지국후원하에서 이십오일 정오부터 련광정하대동강빙상『링크』에서 개최키로대략결정되여 주최와 후원측에서는 목하준비에 분망중이다

재작년 평양대동강『링크』에서 열니엇든 제일회 대항경기대회에서는 경성 백구할빙구락부가 우승햇고 작년경성한강『링크』에서 열니엇든 제이회대항경기대회에서는 평양 련광구락부가 우승하여 일승일패의 성적을남기고제삼회경기대회에 렬하게 되엿다 금년은 어대가우승할지크게 구경거리가 되여잇서인긔는 절정에달햇다 본사긔증의 우승긔를 중심으로 경성과평양에서 최고권위를 가지고잇는 명선수들의 씩씩한경기의 전개가 무한히도 기다려지거니와 금년의 우승자는 누구일는지흥미잇는 경성권을손곱아기다리게한다

福비는新年大雪 地域은京仁에局限

農作과保健爲해必要한降雪

京城測候所員談

신원아츰의 눈은 기다리고기다리든 반가운눈이엇다 이번겨울에는 유달리 날이 따뜻하엿다가 다시졸지에 치워지면서도 눈가튼눈이라고는 구경할길도 업시 날세는파래가지고 매운추이만게속하야의상의 우리건강에도 조치안케영향하엿슬뿐안이라 농작물에도 눈이오지안어 념려스러웟다 그런데 이번에눈이 푸군히차이어농작에도 조흘뿐더러보건상에도 조흐리라고하야 이번눈은새해 의복잇는눈이라고할것이다 그런데 유감인것은이번눈은 겨우경성인천지방에만오고 각지에널리 오지안은것인데 이예대하야 경성측후소의 말을들으면 『금년겨울에는 아주눈이적게왓다 금년새해에는 이번이 첫눈이고 지난해십이월중에도 눈이눈가치 온것이업섯다 또전조선적으로 보아도웬일인지 금년은눈이적다 서조선과북조선지방에 간번에눈이오기는하엿스나 퍽적게왓다 압흐로도더눈올 날이잇슴으로 금년은눈안오는해라 미리단정해버릴 것은안이나 지금까지의 경과로보면 이가치눈이적은것은 다소변조(變調)이다』라고말한다

農作에는눈이大緊

이번은경인지방에만온것은유감

山本農務課技師 談

이번눈에대하야총독부농무과산본기사(山本技師)는아래와가티 말한다

그동안눈오기를 퍽기다렷스나 이번눈이 겨우경성인천지방에만 왓다는것은 퍽유감이다 눈은농사에 직접간접으로 퍽 필요한것이나 금년 겨울철에는 눈이 그리오지 안튼것은 신년의농사를 위해서도 념려되든날이다 당장의 농작물로보아도 밀(麥)과록비(綠肥)에필요하다 즉눈이내린다는것은 마치땅우에 옷을입히는것과마찬가지인데눈이폭덥히면지온(地溫)이다소놉하지며밀과록비의부리를과히보호하게된다 그리고 조선에는천상수를 바다서농사짓는 논이만흔까닭에 겨울에 눈이적으면 봄에나가서 논에부을물못(池)물도적어질념려가만흔뿐안이라 땅이말러서 배급물을먹어야되니 미리겨울에 눈이 만히내리어 땅을 녹지게하여두어야 될필요가 잇다 될수잇섯스면 이번눈도 전선적으로 만히왓섯스면 햇터니지역이 좁앗는것은 유감이다

大氣는清澄 保健에도조타

◇任明宰博士의말

안동병원장의학박사임명재(安東病院長醫學博士任明宰)씨는 이번눈과건강에대하야 다음과 가치말하엿다

그동안 도모지 눈이아니와서 간조하고 몬지가만히나서 공기가매우 혼탁하든것을 거이 씨처버린셈이며 이에따라 간조하엿든 공기가 습기가만히 돌게되야 요사히에 감기가매우류행하든때이만큼 감기병예방으로서는 이러케조흔 일업다고생각됩니다 생각건대 이번눈으로것을 계기로 감기가 차차줄것갓습니다 또눈이만히쌋힌데 햇빗이 쨍쨍비치우면 광선의반사가잘되야 눈(眼)에 매우조흘뿐더러 자외선(紫外線)을잘발사시킬것임으로 피부에도 매우조흘것입니다

雪上에季節風

날어처워질터이다 西、北海岸暴風警戒

겨울가뭄이오래 지속되여여러가지로 일반의념려를씨우든일긔는 구일밤사이에만호눈을주부조선각지에 고르게나리여푸근한맛을늣기게하엿는데 이긔상변화를따라 다시금상도의치위가엄습하려라는 경보가울리운다 십일오후두시반인천관측소에서 발표한경보에의하면 고긔압을따르는계절풍(季節風)의북서풍이강하게 불고기온이 내려여강하하리라는데경긔강원、충남북、경상남북의각도연안은경계하기바란다

不義子를分娩壓殺?

男便은在監中

경긔도양평군 옥천면용천리(楊平郡玉泉面龍川里)이백사십번지에 거주하는 리동호(李東鎬)의처박씨(朴氏)(三)는 어린아이를 압살하엿다는 혐의로방금경찰에서 그를체포하려고 각지에수배중이라 한다 즉박씨는 자긔남편 리동호가 대정십오년류월에 살인죄로 무긔징역을바다 방금복역중에잇슴으로 다년독신생활의 적막을늣기고 잇든바 박씨는그집사용인인 리중호(李重鎬)와 정을통하게되야 드듸어아히까지배이게되여지난십이월북일에아이를나어서곳압살하여버렷다는혐의가잇서곳양평경찰서에서는검거하려하엿스나 피의자박씨는자긔의본가인양주군화도면 차산리(楊州郡和道面車山里)에잇는 박규화(朴奎和)의집에 도망한듯하다하야 방금수배중이라한다

楚山嶺美

楚山郡廳

楚山郡農會

道立楚山醫院

楚山面事務所

楚山公立普通學校

楚山農蠶實修學校

安東旅館

烏山英雄

李正華

趙民喆

仁濟醫院

楚山道立醫院 韓教實 吳上房 李基賢 崔寶金 白金燁 姜觀英

桓仁縣東門街 高麗醫院

フワスト寫眞館

カナリヤカフヱ

秋田商店

昌寧

慶南昌寧 馬首院警察官駐在所職員一同

慶南昌寧邑內 道議員 河駿錫

慶南昌寧邑內 道議員 柳達永

慶南昌寧邑內 昌寧郡廳

慶南昌寧郡桂城面桂城市場 桂城麯子株式會社

慶南昌寧郡靈山面城內 兄弟釀造場 主 河鳳柱

慶南昌寧郡 游漁面事務所 職員一同

慶南昌寧郡 丈麻面事務所 職員一同

慶南昌寧郡 昌寧面事務所

慶南昌寧郡大池面 成樂安

慶南昌寧 雲山面事務所

慶南昌寧 大合面事務所

慶南昌寧 梨房面長 盧在洪

城山面事務所 面長 成然

慶南昌寧 遊漁公立普通學校

慶南昌寧郡桂城面市場通 桂城釀造場 主 河浩龍

慶南昌寧郡大池面 成樂文

慶南昌寧郡大合面十二里市場 大合醸造場 孫益基

慶南昌寧郡城山面冷泉里 燕谷釀造場 尹大應

一般百貨 三一商店 金琮成 振替京城一三八五九番

面事務所 專門印刷 警察官署 太宗社 社主 金長伊 振替京城一七五六一番

株式會社 太宗社發起人會

甲山

甲山邑官公署一同

甲山郡長平面 林業請負人事務所

甲山郡長平面 橋本林業部 甲山事務所

甲山郡會寧面 雲山山農指導區 靈山山農共助組合

咸南甲山郡雲興面 趙聖範

咸南甲山郡雲興面 私立彰興學校 職員一同

咸南甲山郡 金日行

私立育英學校 職員一同

筏橋

筏橋 村上自動車部 電話一四番

筏橋 崔在鶴

鳥城面事務所 職員一同

鳥城驛前 ㈢共益運送店 主 李萬彦

鳥城院市場通 網紗布商 金鎭九

全南筏橋 司法代書人 聯合事務所

全南鳥城院郵便所長 橋本松太郎

全南寶城郡鳥城面牛川里 金箕明

寶城郡鳥城面牛川里 金雙南

寶城郡內 初等學校 職員一同

私立松明學校長 蔡重鉉 電話一五番

陰城

陰城邑內 中華料理 永興園 主 朴端山

陰城郡 金旺面長 李竣成

陰城郡陰城面新泉里 忠濟堂藥房 主 南忠鎬

陰城郡陰城面草川里 鄭文永

陰城郡 面協議會員 南錫祉

陰城東山市場 共進商會

丁奎琢

上水道涵養林 不正賣渡를摘發

新年劈頭부터 論難의 釜山府會議

府의 態度曖昧를 糾彈

【釜山】 부산부회신년초회의(新年初會議)는 구일오후두시부터 부산부회의실에서 의원이십여명의출석으로 개최되여 의사진행중 조선인 의원중으로부터 누말서만큼 고원견상수도 함양림(高遠見上水道涵養林)부정매도(不正賣渡)사건에대하야부당국에 맹렬한공격이 이러나서한때는 형세가매우 험악하기까지 하엿는데 그내용을드르면 원래그 함양림관리(涵養林管理)는번견까지두어 사람을 물게하야자조비인도적 문제를 야긔시기면서 그내용에 잇서서는수도리(水道吏)의정식령수증을 발행치도 안코사사로히수목(樹木)을방매하야사복을채운일이사오건발견되어다 이것을소화칠년도결산검사위원(昭和七年度決算檢査委員)들도 하등철저한조사가업시 그냥등한시하야 덥허둠에잇서 조선인의원권인수(權仁壽)군이 렬긔하야 그진상을 렬거하는동시에 부당국의 애매적책을규탄한것이다 그런데 이부정매매사건에잇서서는 모일본인 의원까지 매수한 사건이잇서 사건의정체가 폭발되면 상당한주면상이 드러날것 갓다하며 금후권의원(權議員)은 정식으로 사법의손에고발까지 하리라하니 금후상당한문제가거듭되리라한다

二種 男女 五六
三種 男女 一〇〇

黃金座一行 平壤에서公演

—十日부터—

【平壤】 원래중앙지대에서조선의 일류남녀배우를 전용으로 하는황금좌(黃金座)에서는성광현(成光顯)박영호(朴英鎬)전경희(全景希)라품심(羅品心)신은봉(申銀鳳)등 오십여명의 례양하야평양 방문제일회 특별대공연을본월십일부터 수정 금천대좌(壽町金千代座)에서박영호(朴英鎬)씨의 근래력작인수다한각본을가지고 신년벽두에 대중을 대하게되엿다한다

元山府公債 僞造券發見

額面合計三千五百圓

【元山】 액면삼천오백원이나되는 원산부공채(元山府公債)위조사건이 근일에 발견되엿다한다 소화사년칠월 원산부발행무긔명공채 천원권석장 오백원권한장의 천액면 삼천오백원의취립(取立)의뢰를 어떤 은행으로부터 지난십이월말경에 바든조선은행 원산지점에서는 이를접수하여가지고 원산부에 그감정을 요구하엿든바 이는위조한공채권으로 판명되엿스며 이미작년팔월중에 상환을 마친것이또한 판명되엿다한다 의외에대규모위조사건의 고발을바든 원산서에서는 즉시 대활동을개시하고 형사대를총동원으로 수사망을편결과 부내모소에서 혐의자수명을인치하고엄중취조를한다고한다

思想專任檢事 平壤에도增員

豫算通過同時實現

【平壤】 총독부법무국에서는 소화구년에 전조선 중요도시의 지방법원에 사상검사를증원하라고 벌서예산 계상을하엿는바 평양도증원예정지로서 조선예산이 통과함과 동시에검사증원을 보게되여잇다고한다 현재일명의 검사로 서는 부족하여평양에서송국된사상사건만으로서도벌서사년이란긴날자를지나고도아즉공판에회부되지못한사건이상당이만녀당입변호사들도이방면에대한요망이만허잇는데 만약 이검사의 증원의 평양에도 실현하게되면 해묵이든 사건은 대개금년도내에 공판을개정하여 결정을보게되리라하여 만흔긔대를 가지고잇다

教員資格試驗

十日부터十日間

【大田】 충남도에서는도청제일회의실에서 십일부터 십구일까지십일간에 도내초등교 교원에대하야 일이삼종시험을 행한다는바 수험지원자수는 남녀합사십오명으로 이것을 종별로 남녀별로보면다음과갓다한다

一種 男女 一三

地方人事

▲鄭鍾德氏(本報醴泉支局長)同務를帶하고入京滯在中이든바十一日夜車로退京豫定

▲朴秉錫氏(本報井邑支局長)同上

▲崔川綱男氏(金浦公立普通學校教員)新任人事次九日本報金浦支局來訪

雲峴宮의봄 (三三)

琴童 作 / 芝山 畫

卄一의十一

「재산이 업스면 가정이 령락되는것은 정한 리치—령락되엿다고 그 사람의 본질까지 더럽은 배가 아니올시다。 대행왕께서도 보시는 강화서 한미한 생활을 하신잇은 대감도 모르시는 배가 아니겟습니다。 흥선군의 둘쨋도령으로서 만약 왕자의 그루에 오된다 하면 모르거니와 생활이 령락되엿스니조차 못하다는것은 일국의수상의 말슴으로 생각되시안습니다」

이 대단한 말에 얼굴까지 검붉게 하고 성하를 노려본것은 하옥 김좌근의아들 병긔엿다

「여보」

이놈이라 부르지 안흔것은병긔의 최대관용이엿다

「당신은 웬사람이기에 이석에 무슨 좌석이라고 외람스되히 주둥이를 드미오?」

「나말슴이오?」

이때의 성하는 벌서「소인」이 아니엇다。

「나도 대감네들과 마찬가지로 외척의 한사람」

「외척? 외척이라는 이좌석은대비권마마와 재상들이 중대한의론을 하는좌석—잡인이석기지못할 좌석이니 냉큼나가오!」

그러나 성하는 대청치 안핫다—

「나도 대비마마의 분부로서 오늘 이 좌석에서 한마듸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가진사람네오」

차차 격론으로 되여 가려는것을 바울안의 대비가 말렷다—

「성하, 잠시 조용해라。 경관서도 조용하고。 자, 수상의의향은 들엇스니, 이번은 원상와 의향을 들어봅시다」

四대의 임군을 먼저 보내고 지금 五대재의 임군을 마즈려는 백발재상 정원용은, 공손히 머리를 수겻다—

「대왕대비권 마마의 하교에 대해서、신이야 어찌 다른 의향이 잇사오리까。 분부대로거행할 다름이옵니다」

「그럼 이번은 좌상의 의견은—」

「신도 어찌 다른 의견이 잇사오릿까? 대비권마마의 하비는 신으로서는 용회(容喙)치 못하는 법이오니、처분대로 거행할 다름이옵니다」

흥선의 편지로서、벌서 마음이 돌아선、조두순은、대비의 말에 이의를 제출하는김좌근을 도로혀 잘못하엿다는 뜻으로 이러케 말하엿다。

「이번은 어듸 좌찬성의 의견을……」

「신은 반대하옵니다。 우리나라에 본시 생존한 대원군이 업섯는데 흥선군의 둘쨋도령을 영립하면、흥선군의 대우를 어떠케 하겟습니까? 왕이상의 존위(尊位)는 업는배오며、왕도 아니며 신하도 아닌 흥선군을 마련할 자리가 어떠케 되겟습니까。 더구나、흥선군은、허튼 바랑에 드나들고 허튼 사람들과 교제를 해서 명문답지 못한 언행이 만흐와、국부로서의 재목이 못되는 인물이옵니다」

사활의 분기선이엇다。 만약 흥선의둘쨋도령을 영립하고흥선으로서 권세를 잡게 하엿다가는 자긔의 지위는커녕생명까지 위트러운 병긔는 악을 써가면서 반대를 하엿다 김문의 군자(君子)인유관대신 김흥근이며 그아들 병덕이며 흥선과 비교적 가까히 사괴인 병학 병국의 형제는 묵묵히 듯고만 잇섯다 차례로 의견을 다 물은뒤에 대비는 고요히 입을 열엇다—

여러 원로대신들의 의견은 다 들엇소이다 혹은 가타하고 혹은 부다 해서 재상들의 의견은 一치치 못하나의 의견을 물은것은 단지 의견을 물을뿐 승동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마음으로 작정한배니 그리 아시오。 흥선군리하웅의 둘쨋도령 재황을 익성군으로 봉해서。 익종대왕의대통을 잇도록—」

최후의 거탄은 드듸어 던저젓다。 재상들에게 그 가부를 뭇는다면 여니와、이미 대비가 스스로 작정하엿다하는 이상에는、옴지길 도리가 업는 일이엇다。

이 거탄은 김문의 권도로서도 어찌하지 못할종류의거탄이엇다。

謹賀新年

扶餘 林川面事務所
面長 林炳學
書記 田珪契
會計 金日圭
技手 千元根
書記 姜漢仲
書記 趙南憲
書記 劉日星
書記 尹相範

扶餘郡林川邑內 南鮮鑛業社 林川出張所

林川面舊校里 金鎭哲

場岩面石東里 大昌金鑛

場岩面紙士里 柳寅鳳

場岩面紙士里 成千基

場岩面紙士里 趙南臣

忠化面晩智里 柳東烈

良化面男浦里 李道行

良化面碧龍里 李奇行

良化面草旺里 朴復來

扶餘郡良化 李相宰

扶餘郡良化 宋孟浩

扶餘郡良化 李濟健

世道面事務所 職員一同

同書記 李相宰

扶餘郡世道 姜文癸

扶餘郡世道 趙琁九

扶餘郡世道 趙南雄

扶餘郡世道 趙聲九

扶餘郡林川邑內 朝鮮酒類製造業 忠南道評議員 申夏澈

扶餘郡林川邑內 鑛業 林炳善

扶餘郡林川邑內 李鍾烈

福岡縣築上郡下城井村 鬼頭五郎市

林川面舊校里 禹鍾振

林川面舊校里 李基萬

林川大鳥寺 住持 李相俊

林川面萬社里 李仁錫

林川面萬社里 李冕鎔

林川面萬社里 李殷九

林川面塔山里 黃仁喆

林川面塔山里 李喜錄

林川面飛亭里 元東準

林川面飛亭里 閔鼎植

林川面飛亭里 李光植

林川面七山里 李鍾泰

林川面七山里 精米業 裵雲煥

林川面七山里 米商 扈判根

林川面七山里 徐光烈

林川面豆谷里 金箕同

林川面豆谷里 任明宰

林川面豆谷里 禹漢命

林川面豆谷里 權義洙

林川面豆谷里 尹重昌

林川面豆谷里 禹顯鶴

林川面店里 雜貨商 南宮植

林川面店里 金三川

扶餘郡世道面 林圭永

扶餘郡世道面 南基昌

扶餘郡世道面 朴魯綸

扶餘郡世道面 林喜善

扶餘郡世道面 金得祥

扶餘郡林川邑內 雜貨商 別役進

扶餘郡林川邑內 雜貨商 王文紳

扶餘郡林川邑內 辛在淵

車輦館

京義線車輦館 朝鮮生命保險會社 朝鮮海上火災株式會社代理店 金應珪商店

京義線車輦館 濟世醫院 金聖濂

京義線車輦館 唯一旅館 申宗植

京義線車輦館 兄弟商會百貨部 黃廷秀

京義線車輦館 聞香樓 冷增武

京義線車輦館 朝日理髮館 桂勳伯

京義線車輦館 吳熙源

京義線車輦館 東興泉 典丕達

京義線車輦館 李基俊自轉車店

京義線車輦館 鐵運商會 黃允秀

京義線車輦館 順成商會 方熙煥

車輦館 駐在所員一同

京義線車輦館 益新商會 朴昊應 韓鍾益

京義線車輦館 本酒都散賣商 岡本仲三吉

京義線車輦館 崔昌立

京義線車輦館 壽世醫院 金鳳基

京義線車輦館 車輦館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京義線車輦館 飲食店主 車京夏

京義線車輦館 飲食店主 金文日

京義線車輦館 崔石官

鐵山郡站面[illegible]洞 振興學院

鐵山郡站面新谷洞 金道俊

京義線車輦館 金允玕商店

京義線車輦館 林愛麟

京義線車輦館 順惠館

京義線車輦館 高慶三代書事務所

京義線車輦館 伊藤徹亮

京義線車輦館 海産物委託業 文奉春商店

京義線車輦館 吳在殷

京義線車輦館 韓昌瓏

京義線車輦館 車輦館消防組

京義線車輦館 車輦館穀物檢查所

京義線車輦館 金順姬

京義線車輦館 靑熙澳

京義線車輦館 長德農園 曹熙洙

京義線車輦館 車輦館農民共生組合

鐵山

平北鐵山郡廳
郡守 姜元秀
庶務主任 吉賀時之
財務主任 田中文吉

鐵山邑內 韓錦花

鐵山邑內 裵文赫

鐵山邑內 西原商店 洪仁淑

鐵山邑內 鐵山面長 鄭國坪

鐵山邑內 黃鶴仙

鐵山邑內 金守信

鐵山邑內 鄭錦紅

鐵山邑內 朴貞心

鐵山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店村

慶北線店村驛前 店村產業組合

慶北線店村驛前 店村酒造組合 李圭璇

聞慶郡永順面 砂防事業區

聞慶郡麻城面 麻城公立普通學校

聞慶郡山北面 山北面事務所 職員一同

聞慶郡籠岩面 籠岩面事務所 職員一同

聞慶郡加恩面 加恩面事務所 職員一同

聞慶郡加恩面 加恩酒造組合 朴時若 朴泳錫

慶北線店村驛前 聞慶麯子組合

慶北線店村驛前 宮脇要助

慶北線店村驛前 新興理髮館 趙貴鳳

慶北線店村驛前 三省堂藥房一同

聞慶郡加恩 加恩公立普通學校

聞慶籠岩 籠岩公普校長 中山泉

聞慶郡身北面 身北面長 琴基憲

聞慶東魯面 東魯面事務所 職員一同

聞慶郡虎溪面 虎溪酒造組合 李圭在 徐泰在 權容仁 金容敢

慶北線店村 戶西南公立普通學校

慶北線店村 京屋洋服店 崔承稷

聞慶山北面 金龍寺講友會

聞慶麻城面 趙南星

聞慶麻城面 麻城面長 金聲輝

慶北線店村驛前 店一商店 李柄容

慶北線店村 徐範錫

慶北線店村 黃鍾吉

慶北線店村 司法代書 文東準

慶北線店村 三南理髮館 下鍾五

明川

明川郡上加面漁堤洞 東光寫眞館 主 鄭用熙 李振鎬

明川郡下加面泗浦洞 朝鮮第一區潛水器漁業株式會社 泗浦漁場

明川郡下加面花台洞 釀酒業 許勳哲

泗浦 郵便所長 川口潔

花台市 楚基英

明川郡下加面花台市 金鍾善

明川郡 下雩面面事務所 職員一同

花台市 元山旅館 禹吉成

泗浦 李泰淵

明川郡下加面花台市 花臺洋服店

下古面漁業組合 理事 金振先

明川警察署

明川郡下古面長 崔在協

慶北線店村 李春岩

聞慶郡永順面 永順酒造組合

慶北線店村 店村郵便所長 李寇儀

聞慶郡東魯 東魯公立普通學校

泗浦 漁業組合 理事 朴振時

泗浦 運搬業 金鍾河

私立阿一普通學校

明川郡下加面泉洞 朴成熙

明川郡下加面泗浦 海産物委託買賣 劉舜七

古站驛前 七寶自動車部

花台市 泗泉酒造花台出張所 高錫囍

古站驛前 朝鮮運送株會社營業所

花台市 金今俊

花台市 馬尙弼

泗浦 朴鳳根

泗浦 康東燮

吉州郡東海市 海產物商 矢部松太郎

東海市 鴻濟藥房 許[illegible]達

東海市 金融組合 理事 趙炳建

東海市 濟蒼醫院 許相基

明川郡下古面[illegible] 海産物貿易商 黃河一

謹賀新年

咸陽

慶南咸陽邑內 咸陽釀造場 盧永寅

慶南咸陽邑內 道會議員 朴泰洪

慶南咸陽邑內 南昌印刷所 韓慶熙

慶南咸陽邑內 智山醫院 王貞煥

慶南咸陽邑內 協同食堂 劉炳湖

慶南咸陽邑內 咸陽郡廳職員一同

慶南咸陽邑內 咸陽産業組合

咸陽三一產業株式會社 社長 盧俊泳

慶南咸陽邑內 咸陽大成株式會社 支配人 李敏鍾

慶南咸陽邑內 咸陽面面事務所 職員一同

咸陽砂防工事事務所 職員一同

咸陽木工組合

慶南咸陽郡休川面 休川面面事務所 職員一同

慶南咸陽郡瓶谷面延德里 吳炳春

慶南咸陽邑內 鄭杓

慶南咸陽郡 水東面事務所 職員一同

慶南咸陽郡休川面木峴里 休川釀造場 鄭珉鉉

慶南咸陽邑內 原田自動車部 沈鍾信

慶南咸陽邑內 司法代書人 金尙珣

慶南咸陽邑內 慶一自動車部

慶南咸陽邑內 婦人商會 金在涉

慶南咸陽邑內 咸陽煙草耕作組合

慶南咸陽郡柳下面竹谷里 梁址煥

楊口

太應善 楊口支店

楊口儒林一同

楊口郡水入面事務所 職員一同

方山面事務所職員一同

合資會社 楊口酒類釀造商會 崔昉爀

林塘公立普通學校
文登公立普通學校
長坪公立普通學校
晴龍公立普通學校
亥安公立普通學校

楊口士曜會

楊口邑內 朝鮮料理 迎春館 藝妓 朴蘭紅 愼柳色 李明花 金紅梅

南一醫院 公醫 南基夏

江原道水入森林保護區主任 嚴在烈

亥安面事務所 職員一同

牧師 鄭基鍾 傳道婦人 李淑宗 幼稚園保姆 崔孝敬

東面東興酒類釀造所 朱柄禧

南面事務所 職員一同

楊口郡方山面長坪市 永昌商店 主 康錫珪

楊口郡北面 職員一同

蠶種製造業 金鎔淳

水入面文登里 鄭道亨商店

方山面長坪里區長 尹熙烈

文登消防組頭 水入面協議會員 鄭德鍾

水入面古方里 濟生醫院 朴基錫

綢緞布木石油 織物雜貨學用品 松田商店

文登酒類製造場 黃乃淳

北面協議會員 金光元

楊口金融組合長坪支所 副理事 朴東爀

楊華自轉車店 主 崔應春

濟衆醫院 朴敏植

金聲鍊商店

楊口邑下里 內鮮旅館 主 安榮植

平田旅館 平田與助

楊興商店 主 具釆鳳

穀物食鹽商 金衡振

楊口商會 鄭東洙

中華料理 東亞園 主 宋吉才

楊口邑上里 貨泉商店 朴萬善

大邱

辯護士 孫致殷

雜貨商同友會

琴湖館 花園別莊 電話二九一番

大邱明治町 徐丙朝

公會堂食堂

金榮台

大邱京町一丁目 道會議員 府會議員 辯護士 金完燮

大邱紙物商會

朝鮮人旅館組合

大邱東城町三丁目一六六 辯護士 金龍式

中華商會

七星町五六一 李敬斗

佐藤醫院

李相岳

尹相泰

辯護士 趙柱泳

大邱京町二 和洋菓子 酒類煙草 食料雜貨 向榮雲 蔡昌錫

清乃家別莊

李柄學

大邱新町 日新商店 金文在 電六四一番

大邱魚菜株式會社

上帝教大源教堂

朴海克

大邱 理髮組合

大邱南城町五一 朴謗益

大邱京町 水也商店 電一一四八

大邱京町二丁目 日東電機商會

李章雨

下北

朴鍾勳

萬鏡館

通度寺宗務所

釜山府佐川町 材木商 新炭 禹敬喆

下北面 新坪酒造場 姜址業

下北面 面協議員 辛敬允

下北面職員一同

熊上面職員一同

上北面職員一同

下北面長梁山金融組合長 安永島

通度寺 住持 黃耕雲

慶南水利組合協會

梁山郡守 玄懿燮

梁山面長 李世鍾

熊上水利組合 文致善

熊上面三湖里 面協議員水利組合評議員 金千洙

熊上面西倉里 入齒院 李龍得

東面 面長 李信雨

東面石山 李喆滈

曺圭信

片倉 南鮮支社

梁山邑 良州旅館 安戊生

梁山郡廳前 司法代書人 曺秉協

梁山自動車部前 梁山トラック營業所 主 李守天

梁山邑 梁山入齒院 朴再願

梁山邑 朝鮮料理 永樂亭 吳貴牙

下北面新坪 綢緞布木 雜貨商 李福萬

下北面新坪 有志 金永弼

下北面新坪 代書人 朴承澤

下北面白鹿里 朴一昊

下北面龍淵 龍淵酒造場 林琫澤

下北面新坪 精米業 黃圻柱

下北面草山 面協議員 朴圓讃

下北面草山 金雪岩

下北面新坪 海東精米所 金相守

下北面新坪 理髮堂 辛鍾奎

通度寺 東中久禮 吳澤彥

下北面新坪 綢緞布木雜貨商 黃周鳳

下北面新坪 面協議會員 學校評議員 崔大鵬

上北面石溪 司法代書人 金原俊

上北面左森 左森酒造場 金柄濬

上北面大石 松月館 鄭觀爽

京釜線勿禁驛前 各種酒 製造業 申德七

梁山金融組合 理事 井上貞一郞

河川

河川公立普通學校
河川公立農業實學校 職員一同

河川面事務所 職員一同

河川金融組合 職員一同

河川消防組 組頭 日原茂 副組頭 朴堯作 小頭 辛長欽 小頭 兪健鉉 小頭 朴順濬 小頭 朴仁天 欽

河川商會

唐津郡順城面城北里 大成工作所

唐津郡順城面城北里 利和金鑛

下岐川

成州郡下岐川面眞興里 長津江間組出張所 配下一同

成州郡下岐川面眞興里 劉學豊

成州郡下岐川面眞興里 眞興運送店 韓永燮

長津古土里 朴成守

成州郡下岐川面 眞興里二區 朴興模

長津在院里 第五號坑 管倉造

長津古土里 日成堂時計店

長津古土里 宋基昊

長津古土里 三省醫院分院

成州郡下岐川面 眞興里三省醫院分院

成州郡下岐川面 眞興里二區 邊應斗

成州郡下岐川面 眞興里二區 金熙俊

長津古土里 金光樓 李時珍

丁奎穆

李海喆

壽生堂藥房 主 張錫鵬

徐奎錫

入江秀夫

李明來

李周性

李恒範

許銳

具仁書

河川面松鶴里 保安組合長 吳仁燮

吳龜泳

印東洙

長津在院里 中華料理 孔世榮

長津古土里 古土醫院 醫師 申鳳雲

長津古土里 金昌漢醫院 出張所 李直鍾

成州郡下岐川面 上通郵便取扱所 朱鍾景

長津古土里 出張所 李基曄

長津古土里 金胃乾

長津古土里 芳美亭

成州郡下岐川面 面事務所 職員一同